

I. 인공지능과 예술. 어디까지가 예술인가?

1. AI가 예술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2. AI로 그린 그림으로 인간의 그림과 같이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되는 이유는?
3. 수단으로써 AI를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인간의 그림인가?
4. AI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돈은 누구의 것인가?
5. AI가 사람의 예술을 수집하는 건 되는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예술을 수집(영향을 받는 것)하는 건 왜 되는가?
6. 인간은 감정을 그림에 담아낼 수 있고 AI는 감정을 모방하여 그린다는 점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가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7. 어떻게 인간만이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I의 예술은 예술이 아닌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II. 생명윤리, 유전자 복제와 낙태

1. 인공자궁을 활용한 출산이 부모와 유대감 형성 문제에 문제가 없는가?
2. 사후 피임약 복용은 낙태인가?
3. 냉동 난자 기술의 적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4. 생명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어디일까?
5. 외상으로 인한 태아의 유산이 생명체를 죽인 것인가?
6.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한 유전자 기술 등의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 생명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은 무엇일까?
8.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우월성은 평범한 아이와 비교할 때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까?
9. 복제 인간의 인권은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
10. 미래에는 과연 평범한 인간이 사회지도층을 할 수 있을까?
11. 유전자 복제를 허용할 시 유전자 조작도 동시에 용인될 확률이 높는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만을 골라 아이가 태어나게 한다면 그 행위는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치즘이 다시 도래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2.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우월주의에 빠져 제2의 히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3. GMO 식품이 인간에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14. 인간이 늙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떤 생명윤리 문제가 생길까?
15. 인간의 심장과 같은 장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 목적으로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복제 인간을 만들어 장기를 이식한 후 복제한 개체를 죽이는 것은 타당한가?
16. 대리모를 통해서 복제되는 개체는 본래의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17. 배아는 완전한 인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18. 신체의 절반 이상이 전자 부품으로 대체되면 로봇으로 봐야 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 감정이 있기에 인간으로 봐야 한다. 인간은 로봇과 달리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와 같은 기관이 교체되는게 아닌 이상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신체의 일부가 얼마나 교체되든 간에 인간으로서 정의와 자아가 변하지 않으므로 인간이라고 봐야한다. 절반 이상이 기계라 해도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본질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계로 교체되었어도 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은 로봇이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감정적 요소들의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배아 복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20. 인간치료를 목적으로 한 복제된 배아를 자아가 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III. 인공지능면접과 편향의 문제점

1. 면접에서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면접을 보게 됐을 때 지난번 면접의 결과가 이번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만약 성형을 했다면?)
2. AI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원하던 회사에서 AI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3. AI 면접에서 면접관이 없을 때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 사투리, 구어체 등의 비표준어나 특유의 억양이 AI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5. AI에 회사나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입력되면 공정한 면접이 될 수 없을 텐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6. 면접자가 AI 면접의 평가 요소와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7. AI가 면접 중 심사를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8. AI가 면접자의 숨겨진 재능이나 에너지를 못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9. AI의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없는데 AI가 내리는 판단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을까?
10. AI가 뽑은 면접자가 회사에 채용되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타격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 다음 면접에서 AI를 도입하는 게 좋을까?
11.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AI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12. 극단적으로 능력 중심주의가 되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지면?
13. 인공지능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일까?
14. 인공지능이 면접을 볼 때 행동 특성만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 적은 정보가 아닐까?
15.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기계가 면접을 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16. 면접 도중에 인공지능에게 오류가 생기면 면접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17. 인공지능 면접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서 공평하다고 생각하나 -1412
인공지능 면접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지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프로그래밍한 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이 개입하게 되면 결국 불공정한 면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것이 인간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히려 불공평할 수도 있다. 또 인공지능의 판단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불공평하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18. 인공지능 기술을 더 높인다면 인공지능이 면접 지원자들의 다양한 측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

IV. 윤리적인 문제를 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

1.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면?
2. 인공지능의 선택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
개발자&기업 : 개발한 로봇에 입력된 데이터가 편향화 되지 않았고 투명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증명한 다음 구매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다.
소비자: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지능의 문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주기적으로 자신의 인공지능의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윤리적 판단을 하는 도덕적 기준이 무엇인가?
4. 인공지능의 윤리와 인간의 윤리의 기준이 무엇이고 일치할까?
5. 인공지능의 판단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옳을까?